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7 년 5 월 7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5월 7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글쓰기" (시, 정현중)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해나

"나무같이" (시, 정연복)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5,36-39

화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나를 새롭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새와 나" (시, 정연복)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민들레처럼" (민중가요)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글쓰기

뭘 하느냐구요?
빛을 만들고 있어요.
어두워서,
자칫하면
어두워지니까.

나의 안팎
자칫하면
어두워지니까.

(시, 정현종 - 낭독: 장동인)

한 마음 한 노래 (시)

나무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꾸준한 변화를 이루면서

철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며

한세상 멋지게 살아가는
나무같이.

뭔가 큰일을 하겠다고
요란을 피우지는 않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
조금씩 깊고 성숙해지면서

세상의 어느 모퉁이에
작은 사랑의 빛을 비추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보람 있는
생을 살고 싶다.

(시, 정연복 - 낭독: 해나)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5,36-39

화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나를 새롭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일자: 2017년 5월 7일

5:36 그리고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을 깐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못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 옷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5:37 그리고 새 술을 헌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릴 것이니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못쓰게 된다. **5:38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5:39 또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 하면서 새 것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5:36 He told them this parable: "No one tears a patch from a new garment and sews it on an old one. If he does, he will have torn the new garment, and the patch from the new will not match the old. 5:37 And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If he does, the new wine will burst the skins, the wine will run out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5:38 No, new wine must be poured into new wineskins.** 5:39 And no one after drinking old wine wants the new, for he says, 'The old is better.'"

한 마음 한 노래 (시)

새와 나

작은 새가 겁 없이
허공의 길을 가듯이

비록 티끌의 존재이지만
당당히 나의 길을 가리라.

지나온 길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새같이

흘러간 시간에 얽매임 없이
오늘의 삶에 매진하리라.

비행의 흔적을 찰나에
깨끗이 지우며 가는 새처럼

남들이 알아주는 뭔가 큰일을
꼭 이루겠다는 욕심 없이 살리라.

새는 새로서
자신의 생을 살다가 가듯이

나는 그냥 나로서
나답게 나답게만 살다가 가리라

(시, 정연복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221 민들레처럼

Am Dm⁶ Am A Dm E⁷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한다 내가 숨에 새긴 불타는 투혼
 모질고 모진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Dm Am 1. Dm⁶ E⁷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 대도 민들레처럼
 온몸부딪히며 살아야한다

2. E⁷ Am

민들레처럼

G Am A Dm E⁷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혼하

Am A Dm G C E⁷

고 너른들 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아 -

Am Em Dm E⁷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꽃씨가 되어 아 -

Am Dm E⁷ F E⁷ Am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투혼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소서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
항상 푸른 잎사귀로 살아가는 사람,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답게 여유로이 살아가는 사람,

거친 삶의 별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 오늘의 기도문은 시인 롱펠로우(Henry W. Longfellow)의 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에 나온 첫귀들입니다.